

평양의 가을 평화가 영근다



무개차 타고 카퍼레이드 ... 평양이 '들썩'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향하며 평양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평양서 2박3일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로드맵 합의·한반도 평화의 문 열지 전 세계가 주목

관련기사 2·3·4·6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 세 번째 만남이며,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2박3일간의 일정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담판에 나선다. 최종 결과는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며 양 정상이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인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태운 전용기는 오전 8시 55분께 서울공항을 이륙, 서해직항로를 통해 9시 49분 순안공항

에 도착했다. 순안공항에는 김 위원장 부부가 나와 직접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반갑게 포옹했으며, 두 정상은 손을 굳게 맞잡았다.

두 정상은 공항에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북측은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 21발을 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다. 공식 환영행사를 마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기 다른 전용차를 이용해 순안공항을 벗어났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 카 퍼레이드에 나섰으며 평양시민의 연도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으며 직접 안내해 준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결실을 맺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가 북과 남의 인민들의 마음과 온 겨레의 기대를 잊지 말고 빠른 노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첫 번째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당 본부 청사에 들어서 방문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음은 하나'라고 적었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열렸으며 우리 측에서는 문 대통령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길 회담이 되길 바라며, 전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과정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조미대화(북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이 찾

아졌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라는 점을 느꼈으며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오후 5시45분쯤 종료, 예상보다 30분 가량

길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에 나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과 관련 "내일(19일) 두 번째 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